



보도시점 (전매체) 1.16(목) 14:00

오영주 장관, 제약바이오벤처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현장 의견 청취

- 전날 발표한 ‘제약바이오벤처 혁신생태계 조성방안’의 차질 없는 실행을 위한 기업 및 전문가 등 현장 소통
- 제약바이오벤처의 성장과 발전에 대한 기대 속 오픈이노베이션, 효과적인 글로벌 진출 전략 마련 등 업계 건의·조언 이어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16일(목) 서울 포시즌스 호텔 누리볼룸에서 오영주 장관 주재로 바이오벤처, VC, 제약기업, 학계 등 바이오 생태계 주요 주체들과 함께 ‘제약바이오벤처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 1. 16(목) 14:00 ~ 15:30, 포시즌스호텔 서울 누리볼룸(6층)
- 참석 : 박현숙(세포바이오 대표), 박찬선(티씨노바이오사이언스 대표), 하경식(아이엠바이오로직스 대표), 김동환(UTC인베스트먼트 대표), 장은현(스타셋인베스트먼트 대표), 정상전(성대 약학과 교수), 안효준(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음현애(휴온스 이사), 이재국(제약바이오 협회 부회장), 허경화(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 대표)

이번 간담회는 1월 15일(수)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제약바이오벤처 혁신생태계 조성방안」을 업계와 공유하고, 대책을 이행하는 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산·학·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이엠바이오로직스 하경식 대표는 “「제약바이오벤처 혁신생태계 조성방안」이 제2의 바이오 신약 산업 발전에 20년만의 새로운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성공적 사업화를 위해서는 글로벌 진출을

목표로 하는 적극적인 오픈 이노베이션이 필요한데, 정부는 오픈이노베이션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하였다.

세포바이오 박현숙 대표는 “지난 5월 오영주 장관 주재로 개최한 ‘한일 바이오 기업인 라운드테이블’을 계기로 일본과의 협력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라면서 “국내의 어려운 투자 및 규제환경을 벗어나 기술을 다른 환경에 이식하고 협업하여 성장시키는 중기부의 글로벌 지원방향에 공감한다.”라고 하였다.

정상전 성균관대 약학대학 교수는 “정부가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심사단을 구성하여 성공 가능성이 높은 벤처를 선정하고 자금지원까지 이어주는 제도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건의하였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이재국 부회장은 “일본, 유럽, 미국 등 해외 클러스터와 협력 추진 시 민관의 강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동 프로젝트에 대한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산업계·협회의 기존 경험을 통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한다면 가시적인 성과 도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오영주 장관은 “바이오벤처는 매출달성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연구비용은 계속 투입하고 있어 재무상태가 상당히 열악하며, 전 세계적으로 바이오 투자가 후기 단계로 쏠림에 따라 초기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 바이오벤처는 무한한 저력이 있기 때문에 향후 3년간 제약바이오 유니콘 3개 육성과 30조원 이상의 기술수출 목표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시급한 부분은 적시에 해결하고, 바이오벤처 성장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 이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특구혁신기획단 특구정책과	책임자	과 장	윤석배 (044-204-7190)
		담당자	사무관	원미연 (044-204-7204)
			사무관	안예리 (044-204-7195)

참고1

제약바이오벤처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간담회 계획

■ 표제 대책 발표('25.1.15, 산경장) 관련, 기업·VC·학계 등 정책 고객 대상 대책의 주요 내용 설명 및 현장 의견 청취

- (배경) 바이오제약 분야 글로벌 선도, 국제관계, 안보 관점의 전략적 대응을 위한 바이오벤처 중심의 혁신생태계 조성
- (주요내용) ① 유망원천기술의 사업화 촉진, ② 기초부터 튼튼한 벤처투자환경 조성
③ 오픈 이노베이션 활성화, ④ 바이오벤처 혁신기반 확충

□ 개요

- (일시·장소) '25.1.16(목) 14:00~15:30, 포시즌스 호텔(서울) 6층 누리볼룸
- (참석) 중기부 장관, 산학연 전문가 10인

* 창업벤처혁신실장, 특구혁신기획단장, 벤처정책관, 특구정책과장, 신기술창업과장, 벤처투자과장, 기술혁신정책과장 배석

【패널토론 참석자】

- (바이오벤처 : 3인) 박현숙(세포바이오 대표), 박찬선(티씨노바이오사이언스 대표), 하경식(아이엠바이오로직스 대표)
- (VC : 2인) 김동환(UTC인베스트먼트 대표), 장은현(스타셋인베스트먼트 대표)
- (전문가 : 2인) 정상전(성균관대 약학과 교수), 안효준(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 (제약사·협회 : 3인) 음현애(휴온스 이사), 이재국(제약바이오협회 부회장), 허경화(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 대표)

□ 세부 행사계획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02	(2')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사회자
14:02-14:07	(5')	■ 기념사진 촬영	참석자 전원
14:07-14:11	(4')	■ 인사말씀	장관
14:11-14:24	(13')	■ 대책 설명	특구혁신기획단장
14:24-15:04	(40')	■ 패널토론(전문가 의견 청취)	장관, 전문가 10인
15:04-15:24	(20')	■ 자유토론	참석자
15:24-15:27	(3')	■ 마무리 말씀	장관

(1) 추진 배경

- **(현재 모습)** 글로벌 제약시장 규모*는 지속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바이오제약(생물의약품) 분야**의 성장세 뚜렷
 - * ('23) 1.6조 달러, ('28) 2.24조 달러로 확대 전망 ('24.1월, IQVIA)
 - ** ('23) 5,649억 달러, 5년간('19~'23) 연평균 13.1% 성장 (World Preview 2024)
- 신규모달리티* 개발 가속화, 신약 개발 다양화 → 바이오벤처 역할 증대
 - * 항체약물접합체^{ADC}, 표적단백질분해^{TPD} 등
- **(환경 대응)** 글로벌 제약사들의 리스크 관리 강화*, 국제관계·안보 관점**에서 바이오산업을 육성·관리하는 추세에 전략적 대응 필요
 - * 개발 초기 보다는 중·후기 기술인수로 전환 추세(임상 1상 이후 단계 진입의 중요성 부각)
 - ** (한·미·일·인도·EU) 바이오제약 연합 출범('24.6월), (미국) 바이오 공급망에서 중국 배제 움직임
- **(기회 활용)** 성공에 따른 보상과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제약 분야의 바이오벤처*에 적합한 지원체계를 마련, 글로벌 바이오 시장을 선도
 - * 원천기술을 글로벌 빅파마에 연결 → 신약개발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역할 수행
- 바이오벤처의 기술이전을 원활히 하여 지식과 경험을 축적하고, 재투자자를 바탕으로 신약 개발로 연결되는 선순환 생태계 조성

⇒ “원천기술 → 기술창업 → 투자 → 기술이전 → 신약개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의 제약바이오벤처 혁신생태계 조성

(2) 추진전략 및 과제

비전	세계 5대 바이오벤처 강국	
목표	■ 제약바이오 유니콘 3개 이상 육성, ■ 바이오벤처 기술수출 30조원 이상('25 ~'27년)	
전략 및 과제	전략 1 유망 원천기술의 사업화 촉진 (바이오벤처 질적 성장 도모, 기술개발 체계 고도화)	전략 2 바이오벤처 투자환경 조성 (모험자본 공급 확대, 신약개발 자금공급 확충)
	전략 3 오픈이노베이션 활성화 (개방형 혁신 역량 강화,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전략 4 바이오벤처 혁신 기반 구축 (규제혁신(해외실증과 분산형 임상), 전략적 글로벌 협력)

전략 1 유망 원천기술의 사업화 촉진

1 바이오 창업의 질적 성장 도모

- **(기획 창업 활성화)** 제약바이오 창업을 조력하는 컴퍼니빌더 트랙* 도입 및 초기 기술사업화 로드맵 수립 지원방안 마련 ('25.2)
 - * 국내외 제약기업과의 네트워크를 갖추고 펀드 운용 경험 등을 갖춘 바이오 전문 액셀러레이터 컨소시엄을 선정, 바이오 스타트업 밀착지원(매년 10개)
- **(보육기반 확충)** 바이오 특화 혁신기관*과의 전략적 협업을 통해 지역·수도권의 제약바이오 스타트업 보육·지원 및 연계 강화('25.2)
 - * 협업체계 : 지역충북창경센터·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수도권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
- **(인프라 고도화)** K바이오랩허브(인천 송도) 운영을 산·학·연·병 협력* 기반의 신약을 개발하는 바이오벤처의 주요 관점에서 설계('25.2)
 - * 공동사업 운영 : ①신약 후보물질 발굴, 분석 등 특화지원, ②온라인 기업 매칭, ③협업 프로젝트 기획, ④양자컴퓨터 활용 파트너십 (연세대) 등

2 바이오벤처 기술개발 지원체계 고도화

- **(후보물질 탐색)** 비임상·임상 개발과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목적효능, 작용기전 등 목표에 적합한 물질 개발을 위한 R&D 기획 ('25.3)
 - * 생성형 AI, 빅테크 신약개발 플랫폼 등 활용 등
- **(개방형 실험실)** 병원(인력, 역량 및 인프라 개방)·창업기업 간 협업 활성화로 임상 현장 미충족 수요를 반영한 시장수요형 기술개발 방안 마련('25.3)
 - * 개방형 실험실 운영 지원을 통해 임상의사·창업기업 간 1:1 매칭 창업 지원
- **(글로벌 협력 R&D)** 물질발굴 완료 후, 글로벌 진출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신약개발 경험이 많은 해외와 기술협력 기획 ('25.2)
 - * (컨소시엄) 바이오벤처와 해외 대학·제약기업간, (공동R&D) 글로벌 협력주체 지속 발굴
- **(사업적 가치평가 및 IP확보)** 임상시험 설계, 데이터 분석·관리 등 바이오벤처 기술의 가치평가를 위한 데이터 확보 및 IP 확보 ('25.2~)
 - * ①국내 임상시험 수탁기관 역량강화 지원방안 마련, ②글로벌 CRO 파트너십 구축 및 밀착 컨설팅, ③제약바이오 특허심사패키지 도입

전략 2 기초부터 튼튼한 바이오벤처 투자환경 조성

1 바이오벤처 모험자본 공급 확대

- **(초기투자)** 비임상·임상을 본격 준비하기 위한 벤처펀드* 신규 조성 및 'K-바이오 백신펀드'와 연계 (후속 투자 → 지속 성장) 강화 ('25.5)
* 비임상 이전 단계 전용펀드로 바이오벤처 마중물 기능 수행 (건당 10~20억원 규모 투자)
-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국내 바이오벤처와 국내외 제약바이오 기업과의 전략적 협업을 촉진하는 펀드 신규 조성 ('25.4)
* ① 14개 국내 제약기업 공동 참여 펀드 (약 160억원 규모),
② 일본 바이오 관련 분야 기업 참여 펀드 (약 300~400억원 규모)
- **(스케일업)** 기업당 50억원 내외 벤처투자·R&D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바이오 벤처 스케일업 프로그램" 전략 수립 ('25.5, 중기-복지-과기부 협업)

2 신약개발을 위한 자금공급 지속 확충

- **(정책펀드 조성 지원)** 'K-바이오·백신 펀드'를 지속 조성하고, 정보교류 및 매칭 투자 등 바이오 기업의 혁신 지원 ('25.1~)

전략 3 오픈이노베이션 활성화

1 국내 제약기업의 개방형 혁신 역량 강화

- **(협업 성공모델 발굴)** 국내 제약사와 바이오벤처 간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신설 → 공동 기획, 창업사업 연계 등 성공모델 발굴 ('25.1~)
- **(공동기술개발)** 제약기업-바이오벤처 간 분업에 기반한 "신약 파이프라인 공동개발 사업" 기획 ('25.4)

2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활성화

- **(정보 비대칭 해소)** 국내 바이오벤처의 핵심 정보를 글로벌 빅파마에 제공 (영문)하고, 보유 파이프라인의 가치 평가 체계* 마련 ('25.5~)
* 기술보증기금, 벤처캐피탈협회, 제약바이오협회, 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 등 협의체 구성
- **(글로벌 접점 확대)** 해외 거점을 활용하여 해외기업, 대학, 연구소 등 글로벌 혁신주체와의 분업적 협업 기반 마련 ('25.6~)
* (GBC, KSC, CIC) 현지 동향조사·제공 등 / (JLABS 한국사무소) 컨설팅, 글로벌 진출 건인

-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글로벌 기업과의 전주기 개방혁신 지원('25.5)
 - * 글로벌-국내 기업 매칭 지원, IR-컨퍼런스·파트너링, 기술교류·인력양성 등
- **(오픈이노베이션 R&D)**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신약물질과 기술 대상 스케일업을 위한 R&D 지원 기획('26.4~)
 - * 주요 대상 : ❶유망기술 선정 기업, ❷글로벌 기업과 비밀 유지계약 (CDA), 물질이전계약 (MTA) 등 체결 기업, ❸글로벌 파마·VC 투자 기업
- **(개방형 혁신 역량 강화)** 글로벌 IR과 파트너링 컨설팅 및 매칭, 유망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전주기 지원체계 마련 ('25.10)

전략 4 바이오벤처 혁신 기반 확충

1 해외실증과 분산형 임상을 통한 규제혁신

- **(해외실증)** 선도국가에서 현지 실증 추진 후 국내 제도개선 환류 ('25.10)
 - 글로벌 혁신특구 (충북 첨단재생바이오)를 통한 해외실증과 실증사례 분석을 통해 국내에 적용하는 '규제지원 미러링 플랫폼' 도입('25.8)
- **(분산형 임상)** 분산형 임상 시범사업 및 글로벌 혁신특구(강원 AI 헬스케어)를 통해 신뢰성·효과성·안전성 확보 및 요소 기술 개발 ('25.10~)

2 전략적 글로벌 협력 기반 마련

- **(생태계 연결)** 생태계 차원의 협력을 통해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면서 시장을 확대하고, 협력에 기반한 글로벌시장 진출 가속 ('25.3~)
 - * (일본 바이오경제 협력) 바이오벤처·제약사·연구자·병원·VC 등과 라운드테이블 정례화 (벨·프·스 양자협력) 벨기에 (R&D, 규제환경), 프랑스 (세포·유전자치료, 투자), 스위스 (유전자편집, 대학창업)
- **(클러스터 협력 강화)** 기업 수요와 기대 성과에 기반한 클러스터 단위의 R&D, 임상 등 공동사업 협력* 추진 ('25.4~)
 - * (미국) 보스턴 랩센트럴, 바이오 스타트업 거점 (뉴욕, 샌디에이고 등)
(유럽) 스위스 Basel Area, 벨기에 Ghent Bio-Energy Valley 등
- **(K바이오 글로벌 원팀 구축)** K바이오의 글로벌 진출 지원역량을 결집, 해외시장에서의 성공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제고 ('25.2~)
 - * 글로벌 바이오 행사 개최·참여의 연계·협력 (바이오 USA, 바이오 유럽, K-글로벌스타 IR 등)